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18, No. 2, pp. 1~13

가정과교육에서의 문화교육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 은 정*
중동중학교*

Exploratory study of Cultural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Kim, Eun- Jeung*
*Joong dong Middle schoo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various theories in Cultural Education. It is to rebuild the value of home economics, and to demonstrate its potential to bring out a true human being.

Until now, home economics education had been focused on developing ability to solve problems, only to fail us in training students to have ability to cope with different conditions in daily life by themselves. With the society rapidly changing, such a temporizing education system would lose its value immediately, and the identity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s at stake today.

The present situation is resulted from the failure in approaching the culture education properly. With the fact that the elements of home economics are culture themselves, the failures in organizing and teaching the subject would urge us to rearrange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We need to bear in mind that the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cannot contain every cultural value. A careful consider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include the essence of the culture at the minimum quantity.

Through analyzing different types of theories and methods of education in Cultural Education, this research is aimed at reviewing home economics education with its concept. Further study in the future should be proceeded with more comprehensive researches on instruction and learning methods with Cultural Education perspective, based on the analysis.

주제어(Key Words) : 문화(culture),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 가정과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1) 교신저자: 김은정(coronia3@nate.com)

Ⅰ. 서 론

가정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곳이며 이를 통해 각 사회는 그 독특한 삶의 방식과 가치, 관습을 그 구성원들에게 전달하여 그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시켜나간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삶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총체인 '문화'를 습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을 그 교수 · 학습 내용으로 하는 가정과교육은 이미 자체 내에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가정과교육을 문화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정과교육에서 '문화'적 요소들을 다룰 때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화'의 관점에 따랐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화와 교육은 '문화'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교육'이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의 재창조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을 키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사회화는 대개의 경우 무의식적인 문화의 습득을 통한 사회 재생산에 그 주된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가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의 유지와 존속, 그리고 동질성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인간을 그 제한된 틀 속에 가두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원시 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사회의 요구가 그리고 그 변화보다는 유지가 더 중요했기에 사회화의 가치가 부각되었지만 다른 사회와 격리 · 고립되어 살 수 없고 오히려 다른 문화와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현대사회에는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필요와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결국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는 각 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야기하고, 문화의 변화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 설정과 이를 삶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그런데 문화의 변화와 그에 대한 판단과 분석, 그리고 삶에의 적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문화'라는 주제를 '교육'해야 할 가정과교육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왜냐하면 본래 가정과교육은 인간생활에서 항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철학적 생활인을 양성해 가는 교육(한시연 외, 1997)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과교육은 문화를 교육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문화교육 관점으로 교과 내에 포함된 문화적 요소들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가정과교육은 주로 생활문화에 그 초점을 맞추어 생활문제 해결을 그 주된 교수 · 학습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단순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다양한 삶의 사태를 바르게 인식하고 규명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단순히 문화 현상 혹은 생활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종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가정과 교육이 이러한 목적을 지향해 나간다면 그 독자적인 영역이 확보되면서 현재와 같은 교과로서의 정체성 혼란 문제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교육이 단순 암기식 기능 습득이나 수동적인 문화 전수의 차원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지성인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문화교육의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아울러 이 방법론에 기초한 수업의 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의 개념

우리말로 " 문화 " 라고 번역되는 " culture "의 어원은 '재배하다, 돌보다, 기르다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의 동사 '콜레레(colere)' 혹은 라틴어의 '컬투스(cultus)'에 있다. 이 동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인간의 가치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연 상태를 변화시키는 목적 추구적인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그 후 'culture'의 의미는 점차 그 의미가 축소되어 '세련되다', '세련시킨다'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농촌사람보다 세련된 도시인을 세련된 사람 즉 문화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세련이나 교양의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좁혀져 특정한 기술에 의해 세련된 것, 즉 미술, 음악, 문학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문화는 야만을 벗어난 인간성을 특징짓는 개념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지만, 근대 이후에는 당대의 사

회적·시대적 배경에 따라 '예절바름', '도시민적 세련됨' 또는 인간의 내적 완성으로서의 정신적·도덕적 연마, 민족의 고유한 자기의식, 정체성 등의 새로운 의미들이 첨가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다양화되었다.

한편 그리스, 로마의 고대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토대로 하여 세워진 서구 근대 사회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인간이 역사적으로 창출한 모든 산물 중에서도 인간만이 창출할 수 있는 것, 즉 인간을 동물로부터 확연히 구분시켜 줄 수 있는 행위와 산물의 총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그런데 문화의 개념을 인간이 자연에 힘을 가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과 더불어 '인간의 행위'를 가꾸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화를 교육함으로 인간행위는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대부분의 인간 행위는 타인에 의해 학습된 문화의 소산물이며 따라서 인간행위는 문화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문화의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서구 중심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서구 이외의 다른 사회, 즉 다른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의해 형성된 삶의 양식이나 특수한 가치들은 문화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서구 문화에 대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던 문화개념의 흐름은 문화 인류학자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클라크혼(Kluckhohn)은 문화를 어떤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해 후천적,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그 집단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생활양식의 총체계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문화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어 문화는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문화에 대한 개념이 좁은 의미의 문화 즉 예술 등에 국한하여 일컫던 것에서 한 집단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총체로 문화를 재규정하게 된 계기는 윌리엄즈(Williams, 1983)의 영향이다. 그는 '문화는 평범하다'는 전제하에 "특정한 시간대의 문화, 특정 집단의 문화 등 집단별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의미 혹은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문화 개념에 기초하여 인류학자들은 한 집단의 문화는 다른 문화와 이질적이라는 전제 하에 각 인간 집단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문화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부적 관점으로 그 문화를 이해, 평가해야 한다는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관점으로 서구 이외의 다른 문화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인류학에서의 이러한 문화개념에 대한 시각적 변화는 교육에서의 문화의 영향을 중시하는 교육인류학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교육은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각 사회마다 문화, 교육 방식, 교육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요구와 기대가 다르므로 각 사회의 특유한 환경에서 어떻게 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 문화교육의 개념

1) 문화교육의 발달

문화교육의 발달은 문화 개념의 발달과 맥을 같이한다. 인류학자들 중 보아스(Boas)와 미드(Mead, 1928)를 비롯한 초기 인류학자들은 교육을 일종의 문화적 과정(education as cultural process), 즉 문화 전달의 과정으로 보았다. 특히 미드는 문화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양상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 교육(vertical education)"과 함께 "세대 내 교육(horizontal education)"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전통이 유지되고 변화의 속도가 완만한 사회에서는 문화가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데 비해서, 전통이 파괴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는 윗세대의 문화적 권위가 무너지고 오히려 아랫세대에서 윗세대로 문화가 흘러가는 문화 역류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미드를 필두로 하여 교육을 폴테스(Fortes, 1938)는 문화전달의 과정으로, 레드필드(Redfield, 1963)는 문화전달과 문화개조의 양면적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기어링(Gearing, 1976)은 문화를 일종의 정보체제로 보았고, 문화전달을 정보의 교환과정 또는 '의미를 조절하고 공유하는 과정(transactions of equivalences)'으로 보고, 문화전달 여부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인지구조(cognitive maps)에서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문화전달의 과정과 결과는 모두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전달을 집단의 수준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인지구조 수준에서 분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변화를 특별히 강조하는 그의 관점은 종래의 문화인류학자들이 '인간의 존재(human

being)'양식을 주로 연구했던 것과 달리 '인간의 형성(human becoming)' 과정에 비중을 둔 것이다. 기어링의 논의는 문화교육에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단순한 생활양식, 생활방식의 전달을 지양하고 "삶의 총체를 의미화 하는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유도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도 여전히 교육은 일방적인 전달의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습자에 대한 관심 역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의 과정으로는 학습자에 의한 문화의 변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그들은 다만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애쓸 뿐이다.

이러한 기어링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월코트(Wolcott, 1994)이다. 월코트는 교수와 학습을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고 보고, '전달'이라는 개념과 방법이 교육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며, 지금까지의 교육이 전달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룬 '학습'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수와 학습은 한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활동이므로 학습의 자율성과 학습자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하며, 학습을 문제해결과 동일시하거나 그것에 국한시키지 말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학습 동기를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개념은 교육을 사회화와 동일시한 뒤르켐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뒤르켐(E. Durkheim, 1956)에 의하면 교육은 문화를 전수하는 활동이며, 성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에게 사회의 규범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뒤르켐에게 있어서 교육은 특정한 사회를 염두에 두고서야 비로소 의미 있게 규정된다. 어느 특정한 시대, 지역에 구애되지 않는 이른바 '보편적 인간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교육은 관념에 의해 날조된 허구이며 사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달하는 것에 급급하게 되어 결국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학교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상의 논의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문화의 전수는 여전히 사회화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된 상황에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문화를 가르치고 창조적으로 적용케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교육, 즉 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라는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관련된 사회적 과정이며, 학교는 교육의 중심으로서 사회의 필요에 합당한 인간을 양성함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즉 학교는 개인에게 생계의 수단을 가르치고, 국가에게는 인력수급과 생산성 및 안정성을 준다는 점에서 학교가 사회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본질은 교육에 있으며, 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문화 음미를 통한 희열을 누리고 더 나아가 문화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은 본질상 사회적 활동이므로, 사회화와 마찬가지로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기여하지만, 사회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화와 달리 교육은 현재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통해 변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초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사회화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측면을 극복하게 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다음 세대에 발전된 형태로 전승하게 한다. 이렇게 사회화와 교육의 차이점을 제시하는 이유는 현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단순한 지식의 암기나 기능 습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문화교육을 다루려고 할 때 문화교육을 사회화의 한 과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교육 내용의 구성과 교육과정이 달라짐으로 사회화와 교육의 차이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화교육에서는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문화에 접근하며 이 교육원리는 다양한 삶의 조건에서 다양하게 창조되고 구현된 모든 문화 즉 신체적, 감성적, 윤리적, 지적인 복합 능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전승되는 '삶의 방식'과 '인간 잠재력의 총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그런데 창조적 삶의 과정에 필요한 지식, 각 개인의 독특한 감성과 지성을 함께 계발하는 지식, 변화하는 세상에 슬기롭게 대처할 능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 지식, 그리고 삶의 주체로 살아갈 학습자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은 암기 위주의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교육의 목표 곧 인간의 고유한 정신능력에 근거하여 문화를 창조하며 개인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니

고 실천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서 크게 멀어지는 것이다.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의 내용과 편성이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 및 심리적 특성에 맞아야 하며 성공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이란 하나의 능력만을 갖춘 인간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인 것이다. 그런데 교육이 추구하는 이러한 인간상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의 한 방법이 바로 문화교육이다.

2) 문화교육의 활용 실태

문화교육을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문화에 의한 교육(education of culture)과 문화에 대한 교육(education for culture)으로 나눠진다. 문화에 의한 교육은 학교나 각종 사회 교육 기관 등에서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말하며 현장체험 학습이나 박물관 학습 등이 포함된다.

문화에 대한 교육은 대중문화, 외국문화, 언론문화, 민속문화, 제 3세계 문화 등을 어떻게 분석·해석하고 그에 반응하며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혹은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이라는 형태로 자문화가 아닌 다른 나라 문화를 익히는 교육(이은적, 2003; 김면, 2003; 임상래 등, 2004)과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대중문화를 교육의 장인 학교수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의 문화교육(정현선, 1997; 최병모, 2004)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문화교육을 접근하는 방식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과에 따라 혹은 교과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문화교육이 방법적 다양성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자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 평가하고 해석하게 함으로써 각자에게 적합한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할 뿐더러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개인의 창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간의 궁극적 가치를 실현시켜 가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문화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의사소통과정이다. 문화는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 간에 공유되는 독특한 의사소통(communication) 체계로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입어야 하고 입지 말아야 하는지 등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 기준은 의사소통 체계 속에서 전달된다. 단순한 문화 전달을 위한 의사소통이 아닌 의식적인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기존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문화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갈 수 있게끔 수업 방법 혹은 수업의 장(場)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육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자.

3) 문화교육의 내용과 학교의 역할

사람의 삶 전체는 문화교육의 소재로 가능하다. 즉 의·식·주 및 문화유산에의 안내와 문화유산의 감상 그리고 현대 생활에의 안내, 문화가 확산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의 친숙화, 문화유산들과 현대 문화와의 연결 및 그 각각의 가치와 동등성 인정, 윤리적·시민적 가치들의 훈련, 감수성, 판단력, 상상력을 기르는 내용이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김문환, 1999; 김세훈, 1999). 삶의 전 영역이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음은 이 내용들을 구성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을 실행하는 장으로서의 학교의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학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문화갈등,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수많은 문화적 내용들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을 지혜롭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인간을 양성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한편 학교는 한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와 기준을 전달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보수적인 역할 담당자 즉 현재와 과거 세대의 정치적·사회적 지배자들이 선호하는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적 가치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현대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함으로써 전통사회의 문화변화를 일으키는 동인(動因)의 역할도 어느 정도 담당해왔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역할 중에서 지금까지의 학교는 보수적인 역할 담당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해왔는데 오늘날에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역할에 더욱 비중을 둘 것을 요구받

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교수-학습의 장(場)을 만들어 가야 하며 더불어 교과교육의 중요한 교육매체인 교과서는 문화교육의 관점에 입각하여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서 문화는 각 사회 특유의 세계관과 관계되며 문화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게 하면서 모든 학생의 개인적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며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학교 교육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특정 교육내용과 방법이 강조된 반면, 문화적 창조력의 고양이나 비판력 함양 같은 인간의 정신 및 내면세계의 발달과 연관된 내용은 소홀히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그 교육내용이나 방법론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교육을 채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하는 주변의 문화와 핵심적인 전통문화 간에 빚어지는 갈등을 직시하게 하면서 이 갈등의 양상 속에서 인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와의 만남, 문화적 편견(특히 계층 문화적 편견)을 배제한 문화적 공정성의 확보, 전통과 현대의 조화, 민족문화를 주체로 한 외래문화의 적절한 수용 등을 가르쳐 나가야 할 것이다.

3. 문화교육의 방법

문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학자에 따라, 교과에 따라, 교과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교육은 패러다임 사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교육이 기존의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 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 즉 자연과 사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상관관계를 함께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패러다임 사고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육의 방법론으로 적합하지 않다.

패러다임 사고에 입각한 교육은 정확한 이론을 바탕으로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인과론적인 사고에 따라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전통 문화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그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런데 이 교육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틀에 따라 이미 정해진 답을 향해 사고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내러티브(Narrative) 사고는 현상학과 해석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유와 결과에 대한 실존적 사고를 의미한다. 내러티브 사고에 입각한 교과교육은 전통 문화(지식, 규범, 예술 등)와는 관계없이 학생들을 교육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형, 즉 자유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 장면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자아를 최대한 해방시켜 즉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주어진 문제 상황을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며 해결해가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예술가처럼 자신의 느낌과 사고에 따라 문화를 창조해 간다(유택열, 2003). 내러티브 교육은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며, 시간적 연쇄로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이를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Polkinghome, 1988).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 창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신이 가진 사고의 한계를 반성하고 수정해 나간다.

굿먼스도터(Gudmundsdottir, 1995)는 내러티브를 학문 영역에 관계없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구조, 지식,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하나 혹은 일련의 사건들을 글이나 말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말을 의미한다. 내러티브 혹은 내러티브 사고는 인간이 삶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가 겪게 되는 사건, 인물, 행위, 감정과 정서, 의도와 생각, 그리고 상황과 장면 등을 총체적으로 통합시켜주고 각각의 경험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위치시켜 주는 인식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조직할 수 있으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학습을 가장 자연스럽고 손쉬우며 강력하게 할 수 있게 된다(Bruner, 1996).

이러한 내러티브에 대한 정의는 내러티브 학습이 교과교육에 활용됨으로써 문화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의 특정한 상황에서 생긴 일련의 사건들 즉 문화가 현재의 인간 생활과 학습자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이야기를 구성하고 전수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은 내러티브를 통

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하며, 상호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소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고하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사고하는 능력을 학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성의 덕을 알고 이를 향유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김안중, 1988). 이 수업과정이 학생과 교사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운데 창조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사와 학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가정과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적용 가능성과 교육 내용 구성

1. 가정과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적용 가능성

학교는 의식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문화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교과를 통해 교육의 이상과 목적을 실현해 나간다. 교과교육의 일환으로서의 가정과교육도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적을 실현할 것을 요구받는다. 가정과교육은 가정이라는 인간 삶의 본질적 영역을 교육대상으로 삼고 다른 교과에서는 배제되어 온 사적 영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가치, 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왔다. 그런데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길러지는 타인에 대한 배려, 봉사, 희생, 헌신과 같은 가치나 덕목들은 경쟁을 통한 이윤추구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합리성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더욱 소중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의 형태와 방식, 예를 들면 가족의 형태와 가족 관계, 가정 생활 방식 그리고 사회가 제시하는 가치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단순한 삶의 형태의 기술(記述)이나 기술(技術)의 습득 혹은 생활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 중에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성을 계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 사회의 요구와 급격하게 변해가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기위해 부심하기보다 학습자의 자율적 판단과 새로운 문화 창조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내용을 선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의·식·주·가족 관계·소비생활 등으로 구분하여 학년별로 교과 내용을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위 내용들을 그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식 문화, 식문화, 주거문화 등과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가정과교육이 "과학적인 조리법"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이 음식의 기원과 그 생성과정 등 그 특유의 민족적·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먼저 관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습자에게 음식의 민족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과 함께 타문화(他文化)도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이해하고 평가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습득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7차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에 따라 새롭게 가정 교과의 정체성과 그 당위성을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연숙 등(2005)에 의하면 7차까지의 가정교과 교육과정에서 의·식·주·가족 관계·소비 생활 등으로 교육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가정학의 전공분야를 그대로 수용하고 반영한 결과이다. 그런데 인간 생활 자체의 통합적인 성격과 가정교과의 생활교과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지식과 기능의 영역별 단순화는 학습자가 개인 및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 갈 학습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여 각 영역의 지식 및 기능을 그들의 개인 및 가족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제안한 대안적 가정과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가정문화의 창조를 위해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전의 가정과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나열된 지식들을 하나의 통합된 관점 즉 문화라는 틀 속에 넣어 재구성하며, 가정생활의 각 영역에 내재된 문화적 요소들을 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에게 자문화에 대한 능동적인 깨달음을 고양하는 한편 창의적인 학습을 통해 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2. 가정과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모형

가정과교육을 문화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화를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주체이어야 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특

성과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접하는 문화의 다양한 의미를 읽어내고, 해석하고, 평가하며, 창조적으로 그 의미를 재구성해 가는 능력을 갖추게 '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가정과교육의 주된 학습 모형인 패러다임 사고 과정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내러티브 사고 과정을 새롭게 도입하여 교과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러티브 사고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선정, 비교, 추론, 배열하고 수정하는 인지적인 활동이다.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는 문제 발생원인, 누구에게, 왜 등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에 대답해야 한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때 세부적인 사실들을 모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해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들을 선정하고 그것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배열하고 수정해 가야 한다 (김희용, 2004). 이러한 과정에 따라 제작된 가정과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수업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 여성에 대한 편견적인 복식 문화

1) 이야기 선정의 이유

의복은 생활의 편리와 몸의 보호라는 기능뿐 아니라 특정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시대의 독특한 성역할(sex-role)과 사회적 역할(social-role)은 의복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생겨난 배경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2) 비교: 전족 vs 코르셋

전족은 중국에서 여자의 발을 인위적으로 작게 하기 위하여 헝겊으로 묶던 풍습을 의미한다. 전족을 하면 발의 성장이 정지되고 고통 때문에 바로서기 혹은 걷기 등이 모두 불안정하게 되며, 발끝으로 서서 걷는 모양이 되고, 몸의 형태도 허리 부분이 튀어나와 팔자걸음을 걷게 된다. 이 전족의 의미에 대해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 남성의 여성 독점욕, 가는 허리와 더불어 전족을 미인의 특질로 삼아 여성을 구속한 악습 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결국 여성을 남성의 성적 기호 대상으로 삼은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풍습은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재창된 전족폐지운동으로 현재는 거의 소멸된 상태이다.

한편 서양의 경우를 살펴보면 20세기 이전에는 중세시대의 성을 은폐하기 위한 의복과 바로크 시대의 남성복에서 보이는 여성적인 경향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연 그대로의 성을 표현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여성의 인체를 구속했던 코르셋이나 스커트 버팀대는 사라지고 바지나 재킷과 같은 남성복 아이템들이 여성복에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의 자유 여성주의자들에 의하면 코르셋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기 위해 여자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고문의 도구이다. 결국 이 코르셋은 여자를 육체적으로 억압하여 단순히 그 활동성을 제약하는 것뿐 아니라 남자에 의한 여자의 정신적 구속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제 현대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아울러 성역할과 사회적 역할의 엄격한 규정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집단 보다는 개인의 인권과 개성이 우선시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복식에서도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살려 표현하는 다양성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아울러 남녀에 따른 의복의 구분이 해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복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추론

의복을 통해 여성의 신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의 인권이 사회 문화적으로 억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양과 서양으로 대별되는 전 세계 문화권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장치로서의 전족 혹은 코르셋, 브래지어, 차도르 등의 존재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했음을 깨닫게 해 준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부장적 사회제도에서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구속이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적 발언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복식에 의한 여성 억압 현상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사회의 이념이 인간의 삶의 다양한 부분 즉 복식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현대

복식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4) 의미 해석을 위한 자료들

여성 억압의 근저에는 가부장제가 숨어있다. 가부장, 즉 아버지에 의한 가족의 지배라는 전통적 의미의 가부장제는 남성위주의 사회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해 여성을 사적 공간인 가정에 가둬 놓고 남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 지위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현상의 표출로서 여성 억압적인 복식문화가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미인에게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요구사항인 순종의 미덕과 남성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가는 허리'가 필수적이었다고 한다. 결국 코르셋은 남성들에게는 매력적인 성적 대상으로 비춰지는 동시에 여성 스스로는 절제된 미덕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시대 남성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반영한 의복의 한 형태이다.

5) 탐구활동

- 종전의 복식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확연했다면 최근 성차를 허무는 경향의 복식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아래의 패션 경향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 제복화된 중성적 스타일
◐ 유니섹스 스타일 vs 공주풍 패션 혹은 메트로 섹슈얼

6) 글쓰기:

다양한 사회 문화, 종교, 신념에 따라 복식문화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유롭게 표현하기(특정한 시대의 구체적인 인물을 설정하여 글을 써도 됨)

학습 효과: 사회 문화적 가치관이 복식에 그대로 적용됨을 깨닫고, 현대 복식문화를 통해 현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와 그 흐름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주제 설정: 식문화의 퓨전화

1) 이야기 선정의 이유

현대에는 교통수단과 저장기술의 발달 등으로 외국 농산물이 대거 유입되고 외국 음식점이 증가하여 국가마다 식생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음식의 계승을 넘어서는 동양과 서양 음식의 퓨전화는 음식문화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음식의 재료, 각종 양념, 조리법, 상차림, 식기류 등에서 동·서양의 퓨전화가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알고 외래문화를 적절히 접목시켜 풍성하고 새로운 음식 문화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가 소비하는 음식의 종류와 식습관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 비교

① 인도의 햄버거

인도인들 10명 중 8명은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는 소를 성스러운 동물로 여기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엄격하게 격식을 따르는 사람은 소고기뿐 아니라 전혀 육식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러한 일반적인 힌두교도들의 식습관에 맞추어 쇠고기를 대신할 고기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인도인들이 주로 먹는 양고기와 닭고기를 햄버거에 쓰게 되었다고 한다.

② 김치의 퓨전화

퓨전 음식은 서양풍과 동양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빵이나 피자 혹은 햄버거에 김치를 접목하는 형태가 있다. 한편 김치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서양인들이 꺼려하는 김치 냄새를 제거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가야 하는데 무엇

보다 반드시 한국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③ 자장면

자장면은 원래 중국음식으로 중국식 된장을 볶아 얹은 국수다.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산둥반도 지방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볶은 춘장에 국수를 비벼 야식으로 먹은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짠맛의 춘장을 많이 넣지 않아 중국의 자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은 그리 검지 않다.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조성되면서 야채와 고기를 섞고, 달콤한 캐러멜을 춘장에 섞어 고소하고 까만 현재의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자장면이 탄생했다.

④ 서양 요리와 동양 요리의 만남

퓨전요리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스이다. 즉 야채샐러드에 서양의 드레싱 대신 간장이나 된장 소스를 곁들이거나 스테이크에 데리야키 소스를 사용하고 혹은 매운 맛을 좋아하면 서양요리에 고추장, 고춧가루를 넣은 소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또는 서양식 스테이크에 한국식 육회 양념을 가미하거나 갈비구이에 살구 잼이나 여러 가지 과일 잼을 바르는 것, 감 소스를 찍어 먹는 광동식 오리고기나 된장 소스를 넣은 오징어볶음, 녹두 당면을 이용한 타이 국수 같은 음식, 햄 등을 섞어 끓인 부대찌개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3) 추론

퓨전음식이란 요리에서 틀에 박힌 스타일이나 국적을 초월해서 새로운 맛을 찾는 시대적 요구의 결실인 동시에 21세기의 세계를 미각으로 융합시키는 새로운 문화 창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퓨전음식이라는 용어를 풀어쓰면 '혼합음식' 즉 서양과 동양 조리법의 장점만을 조화시켜 전혀 색다른 맛으로 승화시킨 음식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요리사들의 개성과 창의성에 따라 기존 요리에 새로운 방법이나 재료를 가미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요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퓨전음식은 전혀 현대적 개념인가? 아니면 과거에도 퓨전음식이 존재했었던가?

4) 의미 해석을 위한 자료들

퓨전(Fusion), 크로스 오버(Cross Over) 요리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단어지만 서양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보편화된 식문화이다. 본래 퓨전이라는 말은 음악 용어로 클래식과 대중가요의 만남처럼 서로 다른 장르가 어울린 색다른 음악이나, 재즈와 락, 발라드 등 장르가 분명하지 않고 이것저것 섞인 노래를 뜻한다. 이런 음악 용어를 식문화에 도입해 격식을 벗어난 새로운 재료 혼합이나 조리 방법 등으로 일반적인 요리상식을 뒤집는 것이 퓨전음식이다. 이런 유의 음식은 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 대부분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다. 퓨전음식은 독특한 소스와 신선한 채소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에는 동서양 조리법 중 좋아하는 맛 또는 장점만을 뽑아 그것들을 최대한 살린 퓨전음식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은 일정한 격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발상에 힘입어 동양요리와 서양요리가 혼합된 퓨전요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문화의 접촉에 따른 문화 융합현상은 대개 주변 국가의 영향에 의해 일어났으나 - 예를 들면 고추의 유입으로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가 정착된 것 등- 현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퓨전음식은 기존의 문화에 바탕을 둔 평범한 음식과는 차별되고, 음식문화의 중요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구난숙 외, 2001). 퓨전 음식은 전통 음식이 가진 일정한 틀과 규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창조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기본적인 조리법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식재료가 조리 과정 중 일으키는 변화와 특성 등 기본적인 조리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위에 조리하는 사람의 풍부한 상상력과 뛰어난 미적 감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5) 탐구활동

① 생각해 볼 문제

- 식문화에 있어서 퓨전화는 왜 일어났을까?
- 퓨전음식이 한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과거와 현재의 퓨전음식문화 간에 드러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② 글쓰기

퓨전 음식이 최초로 등장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역사적 근거에 따라 상상하여 글쓰기

학습 효과: 식문화의 퓨전화를 현대적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음식에 있어서의 문화간 상호 영향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임을 깨닫는다.

위 두 모형은 문화교육의 구체적 예로서 가정과교육에서 다루는 복식 문화와 식문화 영역에서 각각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내러티브 사고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해 본 것이다. 동양과 서양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 도구로 사용된 전족과 코르셋을 비교하면서 이런 복식의 기저에는 어떤 가치와 신념 그리고 문화가 깔려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복식문화의 추이를 통해 현 문화의 흐름을 학생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문화교육이 추구하는 지성인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로 든 식문화 영역은 현재의 식문화에서의 퓨전화 현상을 통해 식문화도 자체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외부 문화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음을 추론할 수 있도록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마지막 단계의 글쓰기인데 이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이미 학습한 내용을 각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한층 심화시키고 내면화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예를 제시하는데 그쳤지만 가정과교육 내용에는 문화교육의 소재가 무궁무진하다. 이전까지의 가정과교육은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교과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수행평가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학습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교과교육에서 교과서는 중요한 교육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내용과 방법적 한계를 극복할 사명은 교사에게 있다고 본다. 교사와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정과교육에 포함된 다양한 내용을 문화교육의 방법으로-여기서는 내러티브 사고에 따른 교육- 접근해 나간다면 가정과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지성계발이라는 교육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가정과교육을 문화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당위성과 그 가능성 더 나아가 그 구체적인 수업의 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화교육은 문화 자체 또는 문화를 소재로 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분석하여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학습자의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교육철학이자 교육방법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기존 사회의 이념과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체제 적응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 체제를 창조적으로 변혁시키는 주역이 되도록 그들의 사고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은 '사회화'의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까지의 가정과교육은 이 기능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다변화된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고력, 판단력, 통찰력, 융통성 등을 배양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한계는 교육의 이상과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교육이 '문화' 그 자체를 교육하는 교과임을 감안할 때 삶의 다양한 상황을 폐쇄적인 사고 즉 단답형의 사고가 아니라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법을 도출해내며 지혜롭게 대처해가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문화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문화교육의 방법으로는 크게 문화에 의한 교육(education of culture)과 문화에 대한 교육(education for culture) 이 있다. 문화에 의한 교육은 학교나 각종 사회 교육 기관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문화에 대한 교육은 대중문화, 외국문화, 언론문화, 민속문화, 제 3세계 문화 등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에 대해 반응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문화를 교육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인데 이를 교수학습과정에서 활용할 때 기존의 교육방식인 패

러다임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여전히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에 따른 교육은 정확한 이론을 바탕으로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인과론적인 사고에 따라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전통문화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그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런데 이 방식은 사고력 신장이나 지성의 계발이라는 문화교육의 목표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대안적인 교육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러다임 교육의 대안으로 내러티브 사고에 따른 교육 방법을 채택하여 수업내용을 구성해보았다. 내러티브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야기 혹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며, 시간적 연쇄로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즉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주제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선정, 비교, 추론, 배열하고 수정하며, 문제의 발생원인, 누구에게, 왜 등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에 답변해야 한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실들을 모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해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들을 선정하고 그것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배열하고 수정해가야 한다. 결국 이 교육 과정의 주체는 학습자 자신이며 학습자의 사고과정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교사와 동료가 있다. 이들은 학습의 장에서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나가거나 정보를 새롭게 해석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삶의 상황을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게 된다.

가정과교육에서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육내용 구성은 시도된 바가 없으나 우리는 이 방법이 문화, 즉 삶의 총체를 다루는 가정과교육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교육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방법론에 입각한 두 가지 수업모형을 만들어보았다. 그러나 두 개의 주제를 다루는데 그침으로써 내러티브 방식을 통해 창출해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 과정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연구를 맺으면서 후속 연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가정과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한 방법으로 내러티브 교육과정을 도입할 때 학습자의 기본적인 지적 수준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학습자의 지적 수준에 따라 이 교육과정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정 교과서에 다양한 문화교육의 주제를 어떻게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할지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수업의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수업을 유도해 갈 것인지에 대한 탐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내희(1999). 『문화사회를 위하여』. 계간 문화과학 19호. 문화과학사

김경식, 윤주국(2004). 현대 사회에서 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학 논총 2004. 제 25권 제 1호 pp.1-21

김 면(2003). 문화교육과 독일민속학 수업.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Vol 27

김문환(1999). 문화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세훈(1999). 평생교육법 제정과 문화교육의 방향.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 정책논총 제 11집

김회용(2004). 내러티브 도덕교육의 성격과 실제. 교육철학 제 25집 pp. 1-19

김안중(1988). 율산(栗山) 이용걸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학교 학습 탐구」. 서울: 교육 과학사. pp. 29-54

유택열(2003). 교과교육과 실제. 교육과학사

이연숙(2005).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가정교과의 대안적 모형. 2005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이은적(2003). 프랑스미술교육과 문화정책: 교육과 문화의 접근. 프랑스문화학회 2003. Vol. 27. pp.337-361

임상래, 김우성, 유왕무(2004). 스페인어교육과 문화, 그 범주와 방법론 모색. 한국 스페인어문학회 Vol. 33

정현선(1997). 문화교육이라는 문제설정II<교육내용으로서의 대중문화>.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Vol. 4

조용환(1997). 사회화와 교육 - 부족사회 문화전승 과정의 교육학적 재검토. 교육과학사

조용환(2001).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2001, 4(2): 1-27

최병모, 박길자(2004). 사회과 교육에서 미디어를 통한 문화교육의 방향 모색. 시민교육연구 제 36권 1호. pp.261-280

한승희(1997).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교육적 의미. 교육과정연구, 15(1). pp.400-423

한시연, 이정덕(1998). 교육연구가 및 교육행정가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에 관한 인식도 연구. 한국 가정과교육학회지 10권 1호

David Nyberg & Kieran Egan(1996). 고려대학교 교육사·철학 연구회 옮김. 교육의 잠식-사회화와 학교. 양서원

Bruner, J. S.(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Durkheim, E.(1956). Education and Sociology. New York: Free Press. 이종각역(1978). 교육과 사회학, 서울: 배영사

Fortes, M.(1938).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Education in Taleland. Africa, 11(4)

Gearing, F.(1976a). Steps Toward a General Theory of Cultural Transmission. In J. Roberts & S. Akinsanya(Eds.). Educational Patterns and Cultural Configurations : The Anthropology of Education, pp.183-194. New York: David McKay Co.

Gudmundsdottir, S.(1995). The narrative nature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H. McEwan & K. Egan(Eds.) Narrative in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Teachers College Press, pp. 24-38

Mead, M.(1928). Coming of Age in Samoa. Washington, DC: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Raymond Williams(1983).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London : Penguin. p.16

Redfield, M.(Ed.)(1963). The Social Uses of Social Science: The Papers of Robert Redfield(Vol.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olkinghome. D.(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 Albany: SUNY Press.

Wolcott, H.(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인간 삶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목표를 둔 문화교육의 이론을 탐색하여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가정과교육의 가치를 재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즉 가정과교육이 인간다운 인간,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문화인을 키울 수 있는 교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문화교육 이론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가정과교육은 과학화, 산업화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효율성 위주로 교과내용을 편성하여 왔다. 그 결과 가정과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삶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능력 대신에 당면한 현실 문제의 처방을 전수하는 것에 치우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처방적인 교육은 사회가 변하면 그 지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가정과교육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혼란은 가정과교육 내용이 삶 혹은 '문화'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교육내용 자체에 문화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문화인, 자유인을 키워내지 못한다는 한계는 다시금 교과 내용의 구성과 교육과정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물론 교과 내용 속에 문화적 가치를 모두 담아낼 수 없지만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지성인을 키워낼 최소한의 필수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아 낼 수지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문화교육을 개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 본 후 문화교육의 관점에 입각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해보았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교육의 이론과 문화교육 방법을 토대로 가정과교육을 문화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심도 있는 탐색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자: 2006년 1월 30일, 논문심사일자: 2006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3월 30일